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으면, 그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
2. 가까이 가야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3.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먼저 부르고 찾으며 가까이 가야 된다. 인간은 ‘육신’인 고로 보이는 세계에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집중되어서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셔도 인간은 모른다.

4.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잡초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여 무섭게 변해 버린다.

이와 같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성자를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지 않아 자기를 ‘선(善)’으로 만들고 개발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와 행위로 변하여 욕도 혼도 영도 무섭게 변해 버린다.

5. 땅속에 묻힌 철을 캐내어 여러 과정을 거쳐 변화시키면, 목적인 대로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욕도 혼도 영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변화되면, 상상도 못 하게 변화된다.

6. 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계속 커 가면, 해마다 상상도 못 하게 변화되면서 크다. 100년을 넘어서 1000년까지 상상도 못 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크다. 처음의 씨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사망으로 가지 않아 죽지 않고 살면, 욕도 혼도 영도 처음에 비해 상상도 못 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변화된다.

7. ‘본래 상태로 그냥 놔둔 것’과 ‘만들고 변화시킨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다. 만들면, 본래의 형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8. <창조의 능력>이다. <만드는 능력>이다.
창조하고 만들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9. 사람도 만들면, 신과 같이 된다.

10. ‘육’으로 행하여 ‘영’이 신이 되게 하여라.

11. 세상의 보이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수백억 가지로 재창조하여 만드는 것이다.

12. 하나님은 ‘제1의 창조자’이며, 인간은 ‘제2의 창조자’다.

13. <만드는 표적>이다.

14. 네가 표적을 보려거든, 만들어라.

15. 네가 기적을 일으키려거든, 만들어라.

16. 보기 싫으면,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라.

17. 너는 꿈이 없느냐. 그러면 만들어라.

18. 만든 자가 주인이다.

19. 없으면, 찾고 만들기다.

20. 온종일 찾았는데 없는 것도 네 <뇌 차원>과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찾으면 있다.

21.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라.

2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든 것은 작으나 크나 모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23. 없는 것은 찾고, 만들고, 사용하기다.

24. <글>도 찾고 만들고, <물건>도 찾고 만들고, <사람>도 찾고 만들기다.

25. 만사의 모든 것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상’이다.

우리는 그의 손과 발과 몸이 되어 ‘그 구상대로 만들기’다.

27. <시간>도 어떻게 쓰면서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8. 만든 대로 쓰여진다.

29. 귀히 만들어 놓으면 귀히 쓰여지고,

천히 만들어 놓으면 천히 쓰여진다.

30. 자연스럽게 만들기다.

31. 순리적으로 만들기다.

32. 구조가 맞게 만들기다.

33. 튼튼하게 만들기다.

34.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기다.

35. 근본 형태와 모양을 알고 설명을 잘해 주면서 창조주와 함께 기뻐하며 만들기다.